

# 아들 신장 이식 위해 매일 8km 달린 엄마

아들에게 신장을 이식해 주고 싶어 3개월 동안 매일 8km를 달려 10kg 이상 감량에 성공한 엄마의 사연이 화제다.



▲ 텐 군(왼쪽)과 신장 이식을 위해 10kg 이상 감량한 어머니 진 모씨. 사진=weibo.com

사연의 주인공은 지난 2020년 9월 중국 후난성 창더제일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중 심각한 요독증을 진단받고 신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된 27세 텐차오 군과 그의 어머니 진 모 씨다.

텐 군은 2020년, 신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그의 가족들은 노점상을 하며 생계를 잇는 형편이었다. 적절한 신장 이식자를 찾지 못했던 텐 군은 한동안 투석 치료로 연명했고, 잦은 합병증에 목숨이 위중한 지경

에 이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어머니의 신장이 이식 수술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병원 측은 진 씨의 체중이 80kg에 육박하고 지방간 등 기저질환이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 말을 들은 진 씨는 매일 거주지 근처의 공원 일대에서 평균 8km를 달렸다. 진 씨는 100일 만에 10kg의 체중을 감량했다.

텐 군은 “놓아주실 때 한번, 신장 이식으로 또 한번, 엄마는 두 번이나 내게 생명을 줬다.”면서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한지 잘 알고 있기에 건강을 되찾고자 거듭 다짐하고 있다.” 고 말했다.

# 환경미화원 일하면서 11년 만에 의대 졸업한 남성

아르헨티나 환경미화원 다리오 지우세포니(38)의 스토리가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면서 11년 만에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된 지우세포니. 사진=diarijornada.com

평범한 택시기사의 아들로 태어난 지우세포니의 어릴 때 꿈은 의사였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의대에 지원했지만 낙방했다. 이듬해 다시 도전했지만 또 실패를 봤다. 그는 “연거푸 떨어지니 돈이나 별자는 생각에 식당에 취직을 했다.” 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일하던 식당을 자주 찾던 의대생 여학생과 우연히 친해지면서 다시 꿈을 꾸게 됐다. 여학생은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 보라.”며 그를 격려했다.

2011년 27살 나이로 다시 토사리오 국립의대 문을 두드린 그는 감격의 합격통지서를 받았다. 그는 대학에 입학하기 전 환경미화원으로 전업했다. 일은 고되

지만 보수가 좋다는 말을 듣고 내린 결정이었다.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면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 시간을 맞추기 쉽지 않았다. 그는 “환경미화원 유니폼을 입은 채 학교로 달려간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고 말했다. 6년 과정의 의대공부를 마치는데 그는 꼬박 11년이 걸렸다.

지우세포니가 졸업장을 받고 의사가 되자 가족들보다 더 기뻐한 사람들은 직장 동료들이었다. 지우세포니는 “동료들이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평소 무시를 당하기 일쑤였다고 하더라.”면서 “그래선지 내 졸업을 누구보다 기뻐했고 뜨겁게 축하를 해주었다.” 고 말했다.

지우세포니는 “심장내과 전문의가 돼 많은 사람을 살리고 싶다.” 고 말했다.

# 하늘에서 쏟아진 물고기



▲ 하늘에서 떨어진 물고기를 들어 보이는 아이. 사진=ioutdoor.com

호주 북부 사막 인근에 있는 ‘라자마누’ 마을에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하늘에서 쏟아졌다.

지난달 19일 이 지역 시의원인 앤드류 존슨 자 파랑카는 “큰 폭풍이 우리 마을로 향하는 걸 봤다.”며 “비라고 생각했지만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물고기도 함께 떨어졌다.” 고 말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은 갑자기 하늘에서 물고기가 땅과 지붕으로 우수수 떨어졌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죽지 않은 채 바닥에서 펄떡거렸다고 증언했다. 날아온 물고기들은 호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농어과 민물고기 스펡글 퍼치로, 약 500km 떨어진 강에서 살던 것으로 밝혀졌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현상과 관련해 “강한 폭풍우가 물고기를 수만m 상공으로 빨아들여 잠시 얼었다 땅에 떨어뜨린 것으로 추정한다.” 고 밝혔다.

마을에서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74년에 처음 보고된 이 현상은 2004년과 2010년 그리고 이번까지 포함해 네 번 재를 기록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목격됐다. 2020년 호주 브리즈번에서 서쪽으로 950km 떨어진 퀸즐랜드의 요와에서도 물고기 비가 내린 바 있다.

비슷한 현상을 조사한 경험이 있는 어류 큐레이터 마이클 해머는 “물에 있던 물고기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데 어떤 힘이 필요할지 꽤 흥미롭게 느껴진다.” 고 말했다.

## Kyung Sook Yu, D.D.S

개원 20주년 기념 스페셜

최신형  
3DCT Pano Can Ceph  
설치 기념

Free  
임플란트 상담

크라운  
(PFM)  
\$500

잇몸치료  
\$200부터

틀니  
\$1500

DR. Kyung Sook Yu USC 치대 졸업

각종 보험 PPO / 메디컬 환영

1370 S. Beach Blvd. #E La Habra, CA 90631

T.562.694.5850 월 - 목 9am - 6pm

Imperial Hwy  
S. Beach  
● 유경숙 치과  
에당식당